

양돈업의 필수과목, 대백과사전 처럼



김 의 승
(본회 대전지부장)

양돈 역사상 가장 극심했던 '79년 불황시기에 진통을 겪으면서 태어난 「월간양돈」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경지를 벗어나 10년하고도 3년이라니!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는 시를 연상하면서 양돈협회를 빼놓고 「월간양돈」을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커플(Couple)이 한국의 양돈업을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음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의 농업생산자단체 중에서도 전국에 84개의 지부를 가진 방대한 조직체로서 양돈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기회있을 때마다 정부에 건의 하여 관철시켰고, 국민에게 호소하여 우리들의 위치를 굳건히 다져왔음을 상기하는 바입니다.

전국양돈인대회를 통하여 강한 결속을 다짐하였고, 임직원연수회 때 만나서 친선을 나누고 좋은 강의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체험할 수 있었으며, 일당중체량 1639g의 세계속의 슈퍼돈을 탄생시킨 제2종돈능력검정소, 양돈협회의 개가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만, 미국 등에 비하여 생돈 90kg 생산원

가가 28%나 높은 11만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돼지가격 진폭률이 45%나 되어 한국의 양돈업을 저해 시키는 요인이 되어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물밀듯이 밀려오는 수입개방화시대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에서 낙오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외쳐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적용과 자조금제도 확립이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원가의 20%를 절감하여 돼지고기 수출 강국이 될 것입니다.

최근 보도에서 일본 전농(全農)의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수입쇠고기는 값은 싸지만 맛이 없어 소비자 기피하고 있다는 글을 읽고서 우리나라 수입쇠고기 잠식률은 53% 이르고 있으나, 한우육이 값은 비싸지만 “우리 입맛엔 우리 것이 최고”라는 교훈을 한번 되새겨 볼만 하겠습니다. 평소 생각케하는 것은 이조시대에 동의보감을 펴낸 허준께서 중국의 (한)의학대전집을 그렇게 보고 싶어 갈망하던 끝에 마침내 보시고 나서는 고개를 저으면서 “중국에서 자라는 약초로는 우리 조

선백성들의 병을 고칠 수 없다”면서 신토불이(身土不二)의 명언을 남기시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그나라 사람들은 그나라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으라”는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 이렇게 선현(先賢)께서 좋은 말씀을 남기셨는데도 조금만 부족하면 마구잡이로 외국농축산물을 수입해 오는 정부측과 수입업자들에게 일촉을 가하는 바이며 작년의 무역적자액중에서 농축산물이 67%를 차지한 것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먹거리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때, 「월간양돈」이 좋은 길을 제시해 주고 해결해 줄 것을 의심치 않으며 본인이 오랫동안 양돈업을 해오면서 머리맡에 베개처럼 늘 가까이서 정보와 기술을 가르쳐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양돈이라면 누구나 없어서는 안될, 필수과목 교과서 처럼, 대백과사전 처럼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을 바라면서 끝으로 「월간양돈」 창간 13주년기념을 전국의 협회회원들과 함께 축하하는 바입니다.